

## 보도자료

2010년 11월 8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기획관 전파방송관리과 송경희 과장(☎ 750-2250)  
전파방송관리과 이주식 사무관(☎ 750-2254) jooshik.lee@kcc.go.kr

# “세계 최초로 3D와 2D를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고화질 3DTV 방송, G20 정상에 선보여 ”

## - G20 주행사장에 3DTV 방송관 개관 -

G20 정상회의 및 관련회의 기간(11.9 ~ 11.12)동안 G20 주행사장인 코엑스에서 3DTV 방송관을 개관하여 올해 10월 29일부터 시작한 세계 최초의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의 우수성을 각국 정상과 외신기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방송은 추가 주파수 필요없이 한 방송 채널에서 고화질 3D 방송과 고화질 2D 방송을 동시에 내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3DTV를 가진 사람은 3D와 2D를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고, 기존의 DTV를 가진 사람은 2D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특히, 3D 방송 화질을 HD급으로 높이면서 2D 역호환성도 보장되는 방송기술을 개발한 것은 희소 자원인 주파수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와 시청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실험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발하기 시작하여 불과 1년여만에 완료하고 지난 달 29일부터 실험방송을 실시하였다.

지난주에는 북미 DTV 표준화 기구인 ATSC의 의장단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ATSC 기반의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 축하하였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들과 면담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술도 우리나라만

쓰면 의미가 없으며, 국제표준이 되어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표준 제정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DTV 방송관에는 지상파와 위성을 통해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 시연하며, 기존 DTV를 이용하여 2D 역호환성 방송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준화질(SD급) 수준의 3D 방송 방식(Side-by-Side)도 시연함으로써 고화질 3D 방송과 직접 비교 체험을 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은 일반 DTV에서 시청하게 되면 화면이 반으로 분할되어 나오는데 반해, 고화질 3DTV 방송기술은 일반 DTV에서도 HD급 2D로 시청이 가능하여 우수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리고 3DTV 방송관 전면에는 3DTV 16대를 이용하여 3D wall을 만들어 거대한 입체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방송관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3D 프로젝터를 이용한 3D 극장을 꾸며 마치 영화관에서 3D 영화를 감상하는 기분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3D 노트북과 다양한 3DTV 신제품들을 다채롭게 전시하였다.

방통위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고화질 3D 방송기술을 안정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외부 홍보도 강화함으로써 ‘3D 방송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도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G20 방송통신 미래체험전에서 고화질 3DTV 실험방송과 각종 방송통신 신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끝.